

# 모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 I. 일반개황

면적	447천km <sup>2</sup>	GDP	985억 달러(2012년)
인구	32.52백만명(2012년)	1인당 GDP	3,028달러(2012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8.63(2012년)

- 모로코는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와 3,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에 자리잡고 있음.
-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에 힘입어 카사블랑카 등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발달하였고, 농산물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모하메드 6세 국왕이 1999년에 즉위한 후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아랍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2011년 2월에 튀니지 민주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사법권의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2년에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큰 구조적 특징 보유

- 2012년 기준으로 농업 부문은 GDP의 14.7%,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실질 GDP 성장률: 4.8%(2009) → 3.6%(2010) → 5.0%(2011) → 2.9%(2012)
  - 농업부문 성장률: 30.4%(2009) → -1.6%(2010) → 5.3%(2011) → -6.0%(2012)
- 2008~09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및 양호한 작황으로 인해 각각 5.6%와 4.8%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10년에는 강수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3.6%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2011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작황과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여름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최대교역국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에는 작황이 개선되어 3.3%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관리변동환율제로 인한 환율안정의 영향으로 최근 연 1~2%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국제 상품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GDP의 5% 수준) 지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09~11년에는 1%를 하회하는 데 그침.
- 2012년에는 원유 등 국제 상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제성장률	5.6	4.8	3.6	5.0	2.9
재정수지/GDP	0.4	-2.7	-3.7	-5.7	-6.1
소비자물가상승률	3.9	1.0	1.0	0.9	2.2

자료: IMF, EIU.

□ 재정수지는 2009년 이후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2008년에 보수적 재정 운영으로 GDP 대비 0.4%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09~10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각각 GDP 대비 2.7%, 3.7%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도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조금 증가와 공공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5.7%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연료 및 식료품 부문의 보조금 지급 증가,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관광업의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취약

- 2012년을 기준으로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2.6%, 인광석 등의 광업 및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32.7%, 농업 및 수산업이 1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은 GDP의 점유비중이 낮으나, 고용의 약 40%가 종사하고 있으며, 기후 여건에 따른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작황의 변동이 심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중동의 정세, 테러 발생 유무, 유럽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움.
- 정부가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교역의 높은 유럽 의존도

- 수출,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외국인투자 등 대외거래 관련 수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대외거래의 약 75%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주요 수출국(2011년 기준): 프랑스(20.3%), 스페인(18.1%), 인도(6.9%), 브라질(5.0%)
  - 주요 수입국(2011년 기준): 프랑스(13.8%) 스페인(10.9%), 미국(8.5%), 사우디아라비아(6.8%)
- 정부가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

- 모로코는 전 세계 인광석의 약 3/4(추정 매장량: 580억 톤)를 보유하여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인광석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인광석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량의 45.5%를 점유하고 있음.
- 인광석 관련 산업이 모로코 GDP의 6%를 차지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인광석 개발 및 비료, 화학 등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광석 산업을 자유화하고 관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향후 동 부문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아연, 납, 구리, 망간 등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틀라

스의 미탐사 지역에는 상당량의 금, 은, 코발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관광산업 발달

- 유럽과 근접한 지중해에 위치하여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이집트와 함께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관광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GDP의 52.6%에 달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농업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특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과 관련, 2012년 초 프랑스의 르노(Renalt)가 진출하여 12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의 생산을 본격화한 이후 같은 해 상반기에 자동차 부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4% 증가하였음. 정부는 2013년에 추진될 새로운 자동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계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EADS, Boeing, Snecma 등 세계 주요 항공산업 관련 기업 약 100개가 모로코에 진출해 있으며, 2011년 동 분야 수출액이 10억 달러(총 수출량의 5%)를 기록하였음. 정부는 동 부문에 2015년까지 15,000명의 신규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음.
- 정부는 2002년부터 지역투자센터(Regional Investment Centre)를 개설하여 투자 관련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2012년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모로코는 183개국 중 94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1단계 상승하는 등 기업환경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개발 통합프로그램 실시**

- 정부는 재생에너지개발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총 전기소비량의 42%를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각 14%)로 충당할 계획임.
- 풍력발전량은 현재 연 280MW이나, 5개의 풍력발전단지(약 40억 달러 규모)를 조성하여 720MW로 늘리고, 2020년까지는 2,000MW까지 확대할 계획임.
- 또한 5개 태양광발전단지(약 90억 달러 규모)를 건설하여 연 1,000MW의 발전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연 2,000MW까지 확대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 개발은 약 95%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설비산업 발달, 지역경제 발전, 기술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

- 2011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SOC 투자로 건설 및 플랜트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은 National Plan for logistic(물류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Emergence Plan (주요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Halieutis Program(어업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Maroc Vert(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National port strategy 2030(항만 개발사업 2030) 등이 있음.
- 또한 2015년까지 모로코 고속도로 개발의 마지막 400km 구간이 건설될 계획이며,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가동되면서 향후 모로코 건설·플랜트시장의 성장잠재력은 큰 것으로 전망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e</sup>
경 상 수 지	-4,637	-4,949	-3,943	-7,986	-7,629
경 상 수 지 / G D P	-5.2	-5.5	-4.3	-8.0	-7.8
상 품 수 지	-19,497	-16,364	-15,062	-19,451	-21,540
수 출	20,330	14,045	17,584	21,512	20,910
수 입	39,827	30,408	32,646	40,963	42,450
외 환 보 유 액	21,976	21,924	21,762	18,802	15,811
총 외 채 잔 액	20,825	23,751	25,403	27,825	29,632
총 외 채 잔 액 / GDP	23.4	26.1	28.0	28.0	30.1
D S R	10.1	10.2	8.9	9.4	10.1

자료: IMF, EIU, OECD

####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상수지는 2007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국제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증가하면서 5.2%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5.5%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인광석 등의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3%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국내외 투자 재개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 및 원유 등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8%로 대폭 확대되었음.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는 제조업 기반의 취약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가와 곡물가의 상승 및 각종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 적자 폭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임.
- 2012년에도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감소, 관광 수입(收入)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7.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유럽연합(EU)의 경기 침체로 인한 관련 수출 감소, 관광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유로존 경제 위기로 인한 관광 수입(收入) 감소로 2011년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1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EU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 주요 수출품인 인산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158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EU는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대외거래의 75%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상품 수입 증가로 2009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말에 3.7개월분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억 달러): 219(2009) → 218(2010) → 188(2011) → 158(2012)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6.6(2009) → 6.2(2010) → 4.3(2011) → 3.7(2012)

□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황

- 총외채잔액은 인프라 개발 및 산업 다변화를 위한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나 2008년 208억 달러에서 2012년 296억 달러로 42.3% 증가하였고, GDP 대비 외채 비중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D.S.R이 2012년 기준 10.1%로 양호한 편임.

□ 2012년 IMF의 예방적 유동성 지원(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승인

- 2012년 8월 IMF는 모로코를 대상으로 62억 달러 규모의 PLL\*을 승인하였으며, 보조금 및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PLL: IMF가 회원국의 재정정책, 금융 부문 건전성 등 일부 조건이 지원 조건에 미충족 되더라도 사후 정책 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반정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모하메드 국왕의 집권 지속으로 정치안정

- 모로코는 왕정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1년 2월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국왕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포괄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안은 투표율 74.8%, 찬성률 98.5%로 통과되었음.
  - 헌법 개정안은 완전한 입헌군주제의 도입,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및 사법권의 독립, 베르베르어의 공식어 채택, 남녀평등 및 개인 자유 보장, 부정부패 척결,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총선 전후인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왕의 여전한 핵심권력 및 군부 장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발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등 동 시기에 주요 권력이 교체된 여타 주변국 대비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편임.

##### □ 헌법 개정을 통한 총선 실시 등 평화적 민주화 진행

- 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는 온건 이슬람 세력인 정의개발당(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PJD)이 전체 395석 중 107석을 차지하면서 제 1당이 되었고, 2007년부터 연립정부(5개 정당)를 이끌던 독립당(Independence Party)은 60석에 그쳤음.
- 2011년 11월 29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개정 헌법에 따라 제 1당인 PJD의 압델라 벤키라네(Abdulilah Benkirane) 사무총장을 총리로 지명하고 연립정부 구성권과 국왕이 독점했던 장관 임면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유혈사태 없이 민주화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지속

- 2011년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동년 2월에 모로코에서도 정치개혁 및 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위는 튀니지, 이집트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되었고, 3월에 국왕이 헌법 개정 등 포괄적 개혁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일단락되었음.
- 2011년 7월에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헌법 개정안이 민주적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나, 9월에 국왕의 권력 제한 등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1월에 수도 라바트에서 실직자 5명이 일자리 부족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하였으며, 카사블랑카에서는 왕정의 정치개혁이 헌법 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발하였음.
- 2012년 5월과 8월에도 카사블랑카와 수도 라바트, 마라케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민생문제로 확대되는 등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및 범죄 활동 발생

- 2011년 4월에는 관광명소인 제마 엘 프나 광장 부근에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MI)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였음.
- 또한 군인이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범죄조직과 알카에다가 연계된 마약 등의 밀수행위가 만연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서부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폴리사리오, 알제리와 긴장관계

- 서부사하라 주민들은 1973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Polisario Front)이라는 지역 독립무장단체 중심으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음. 1976년에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하였음.
- 1979년에 모리타니가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1991년에 UN의 중재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UN의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으나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서부사하라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알제리도 이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서부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중재 하에 모로코, 폴리사리오와 유관국인 알제리, 모리타니가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모로코 정부가 포괄적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알제리 정부가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실시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 미국, 유럽과 긴밀한 관계 유지

- 모로코는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2004년에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이후 관련 교역규모가 확대되었음.
-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는 역사, 지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에 제1차 모로코-EU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2013년 3월에는 EU가 모로코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양국 간 FTA가 성사될 경우 경제관계를 비롯한 민간교류, 기업관계 등 양국 관계가 심화 발전할 것으로 보임.

□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2011년에 정부가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관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제10회 청소년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와 2015년 제27회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African Cup of Nation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1983년에 급격한 외채 증가로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경험이 있으나, 이후 성공적으로 외채상환태도를 개선하였음.
- 201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2억 9,280만 달러, 중장기 42억 9,850만 달러로 총 45억 9,130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3,660만 달러로 전체의 0.8%에 불과함.
  - 단기 : 총 지원잔액 2억 9,280만 달러 (연체금액 : 90만 달러, 0.3%)
  - 중장기 : 총 지원잔액 42억 9,850만 달러 (연체금액 : 3,570만 달러, 0.8%)

###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28개월간 카사블랑카에서 조르프라스파 산업단지에 인광석 및 비료를 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를 11k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공사로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EPC)함.

**<표 4> 한·모로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322,780	362,317	508,492	자동차, 영상기기, 화학연료
수 입	153,485	137,257	218,120	동제품, 반도체, 기타금속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2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22건, 59,917천 달러

- 최근 대 모로코 투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단 2건, 1건으로 투자 금액도 23만 6천 달러, 3만 6천 달러에 그쳤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임.

**V. 종합 의견**

- 2012년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작황 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작황 개선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된 3.3%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재정수지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등으로 2009년 이후 적자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외채상환과 관련하여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D.S.R도 10% 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 대외 지급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 중동 민주화 시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모하메드 국왕이 헌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여타 주변 국가와 같이 체제가 전복되지는 않았으나, 2012년에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은 지속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모로코에 대해 OECD는 3등급, S&P와 Fitch는 BBB-(투자적격등급), Moody's는 Ba1(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